

한국 축구, '철학' 갖춘 새 사령탑 뽑아야

축구협회 전력강화위 후보 11명 압축... 국내 4·해외 7명
모호한 8가지 선임 기준... '명확한' 철학 제시 못해 의문

다시 뛰는 한국 축구가 새 사령탑 선임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한국 축구를 망친 윌리엄 클린스만 전 감독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확고한 '철학'을 갖춘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 사상 첫 원정 16강이란 성과를 낸 한국 축구는 클린스만 감독 체제로 올해 초 열린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노렸지만 풀전 끝에 4강 탈락했다.

또 수장이 대표팀 내분을 사실상 방관해 '캡틴' 손흥민(토트넘)과 '차세대 간판' 이강인(파리생제르맹)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상상하기 힘든 사태도 벌어졌다.

결국 논란 끝에 클린스만 전 감독이 물러나고, 손흥민과 이강인이 다시 손을 잡으면서 혼란은 일단락됐다.

여기에 소방수로 나선 황선홍 올림픽 대표팀 감독과 3월 A매치 기간에 열린 2026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태국과 2연전을 무난하게 넘기면서 급한 불을 끄다.

이제 시선은 다시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를 모아지고 있다.

한숨 돌린 전력강화위는 전날인 2일 5차 위원회를 열고 국가대표 사령탑 후보군을 32명에서 11명으로

압축했다. 정해성 위원장에 따르면 국내 지도자가 4명, 국외 지도자는 7명이다.

후보군이 누군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국내 지도자의 경우 현재 K리그 감독들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 위원장은 "해외 지도자 면담을 우선 진행하는 건, 국내 지도자에 대한 데이터는 이미 쌓인 데다 현재 리그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력강화위는 이달 안으로 후보자 면담을 진행해 후보군을 더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르면 5월 초, 늦어도 중순에는 새 사령탑 선임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월드컵 최종예선 진출의 9부 능선을 넘는 대표팀은 6월 싱가포르 원정(6일), 중국과 홈경기(11일)를 앞두고 있다.

5월 안으로 새 감독을 선임해야 6월 대표팀 명단을 추릴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

11명 중 국외 지도자 비중이 7명으로 더 높지만, 축구계 안팎에선 클린스만 전 감독의 실패로 이번에는 외국인보다 국내 지도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크다.

클린스만 전 감독 경질로 거액의



정해성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제5차 전력강화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위약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몸값이 높은 외국인 감독을 데려오기도 쉽지 않다.

또 잦은 해외 체류와 K리그 선수 발굴에 소극적이었던 클린스만 전 감독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전보다 강화된 기준점을 제시해 요건에 맞는 외국인 감독을 찾기도 어렵다.

물론 국내 지도자를 선임하는 데도 로터 높지만, 축구계 안팎에선 클린스만 전 감독의 실패로 이번에는 외국인보다 국내 지도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크다.

클린스만 전 감독 경질로 거액의

진행 중일 때 데려와야 한다.

지난 3월 A매치를 앞두고도 흥행보 울산 HD 감독 등 K리그 사령탑들의 선임설이 불거져 새 시즌을 앞두고 협회가 K리그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정 위원장도 이를 의식한 듯 "K리그 구단에서 감독을 모신다면, 협회가 우선적으로 소통하는 게 팬들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대표 감독은 명예로운 자리"라며 일정 부분 희생은 피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일각에선 K리그 현역 감독을 빼오

면 안 된다는 주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팀을 대한민국 최고 감독에게 맡기지 말란 소리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있다.

K리그 감독 선임을 무조건 희생으로 봐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국내의 지도자를 떠나 가장 큰 우려는 협회가 제시한 새 감독 선임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점이다.

앞서 정 위원장은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차기 감독 관련 8가지 기준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전술적 역량 △선수 육성 △지도자로서 성과 △대회 경험 △소통 능력 △리더십 △최상의 코치진 꾸릴 능력 △7가지 자질을 바탕으로 맡겼을 때 성적을 낼 능력이 여가에 해당한다.

알핏 디테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감독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요건이기도 하다.

때문에 카타르월드컵에서 16강을 이뤄낸 파울루 벤투 전 감독이 고집했던 '빌드업 축구'와 같은 확실한 철학이 없어 새 감독 선임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때도 이러한 '철학'보다 지도자의 '명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제대로 된 검증이 되지 않았다.

전력강화위가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독단으로 이뤄진 클린스만 선임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냈지만, 명확한 선임 기준조차 세우지 못하면서 걱정의 목소리가 크다.

/뉴시스



정읍 단풍미인씨름단 오대산천 대회 '준우승'

정읍시청 단풍미인씨름단(이하 단풍미인씨름단)이 '위더스제약 2024년 민속씨름 평창 오대산천장사 씨름대회'에서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했다.

3일 씨름단에 따르면, 대한씨름협회와 평창군 씨름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평창군 진부생활체육관에서 열렸다.

27일 열린 16강 경기에서 수원시청 씨름단을 4대2로 꺾은 단풍미인씨름단은 같은 날 8강 경기에서 의성군청 씨름단을 4대 1로, 4강 경기에서 태안군청 씨름단을 4대 3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그러나 28일 열린 결승전에서 울주군청 씨름단에 아쉽게 패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비록 아쉽게 우승을 놓쳤으나, 단풍미인씨름단은 1차전 김해민, 2차전 김지후, 3차전 정상호, 4차전 정석진 선수가 최선을 다하여 단풍미인씨름단의 투혼과 열정을 보여줬다.

박희연 코치는 "이번 평창 오대산천장사씨름대회에서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둬 뿌듯함을 느낀다"며 "매 훈련마다 열심히 임해준 선수들과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주는 이화수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창 던지는 비너스 조각상' 파리에올림픽 종목 형상화

파리 국회 건물 앞에 조형물 설치... 대회 기간 동안 전시
올림픽, 7월 26일~8월 11일 · 패럴림픽, 8월 28일~9월 8일

2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국회 건물 앞에 '2024 파리올림픽·패럴림픽'을 주제로 한 조형물이 설치됐다.

예술가 로랑 페브로스가 디자인한 조형물은 비너스 조각상이 각각 창던지기, 양궁, 서핑, 복싱, 농구, 테니스를 하는 모습을 담았다. 이는 올림픽 종목을 형상화한 것이다.

조형물은 대회 기간 동안 전시될 예정이다.

파리올림픽은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되며 32개 종목, 329개 경기에 1만5000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파리 패럴림픽은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22개 종목, 549개 경기가 진행된다.

/뉴시스



2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의 국회 건물 앞에 '2024 파리올림픽·패럴림픽'을 주제로 한 조형물들이 설치돼 있다. 조형물은 대회 기간 동안 전시될 예정이다.

"사전투표 하고 야구보러 오세요"

kt wiz, 6일 퓨처스리그 익산 홈 개막전 이벤트 진행

kt wiz 야구단은 2024 시즌 퓨처스리그 개막을 맞아 kt wiz 홈 경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익산시와 kt wiz 야구단은 총선 사전투표일인 오는 6일 열리는 익산 홈경기 개막전에 야구장을 찾는 관람객을 위해 kt wiz 공식 응원복과 경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경기시작인 오후 1시에 앞서 12시부터 열리는 이번 행사는 선착순 300명에게 응원복과 소정의 방문 선물을 제공하고 이날 이벤트를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

또한 kt wiz 공식 응원단 치어리더팀을 초청해 관람객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열고 응원 열기를 북돋을 예정이다.

kt 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홈 경기와 더불어 8월에 있을 서머리그 등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지역사회와 교류 활동을 강화해 주민들에게 친숙한 구단으로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kt wiz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시민들과 야구팬들이 익산 홈경기에 야구장을 찾아 선수들을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